달아오른 민주 본경선…‘대세론’ vs ‘뒤집기’ 기싸움

이재명 “손발 묶인 권투하고 있다”
이낙연 “1대1 구도로 들어섰다”
정세균 “스캔들 의혹 철저 검증 필요”
추미애 “윤석열 적은 윤석열 자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12일 본격적인 본경선 경쟁에 돌입했다. 전날 마무리된 예비경선 결과를 놓고 후보간 ‘눈치 싸움’도 시작됐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권 주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대세론’을 앞세워 초반부터 기싸움을 펼쳤고, 다른 후보들은 “1위와 격차가 줄어들며 판이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며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했다. 특히 이재명·이낙연 후보 측의 ‘2강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미 2강 구도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손발 묶인 권투’에 빗대어 선두주자의 고충을 토로하며 1위 수성을 다짐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의 박광온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1강 1중 구도가 2강 구도로 들어설 것”이라며 “지지율 재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선투표 없이 본경선에서 끝낼 수 있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보다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 (여야간) 1대 1 구도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본선을 걱정해야 될 입장으로, 원팀을 살려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선에서 우리 역량이 최대 발휘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손발 묶인 권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거세지는 추격과 당내 공세에 이처럼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캠프 관계자는 “결국 본선에서 윤석열 등 야당 후보를 이길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권심판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국적으로 표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적은 역시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윤적윤이라고 할까요”라며 맹비난했다. 추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 전 총장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세운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윤 전 총장의 낙마를 위해 대선에 나온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석열을 겨냥하고 나온 것은 아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그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차원일 뿐”이라고 답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이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 해명 요구에 다소 불만이 있다는 지적엔 “검증에 응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면서 “후보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당연히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선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고 따져 능력과 도덕성을 확인해서 대표선수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를 안 하려면 경선을 뭐 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에 대해 “당내 예선에서 이 정도도 못 견디면, 그런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로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또 말을 바꾸던데 정책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된다”며 “누구나 다 그런 각오를 해야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파이팅”…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미팅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재확산에 민주당 경선 연기 재점화

송영길 대표 “필요하면 논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연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12일 최고위에서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송 대표는 “코로나 와중에 총선을 치러낸 것처럼 대선 경선을 일정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경선 일정을 확정하면서 “실무적인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정을 최고위에 위임한다”고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근 방역당국에 공문을 보내 방역 지침상 경선 관련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적으로는 선거기획단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방역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비대면 경선 방식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주간 국민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한 만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도 최소 2주간은 순연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권주자들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앞서 경선 연기에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는 ‘단답형으로, 경선 연기는 안된다는 입장이죠’라는 질문에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죠”라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도 “앞선 경선 연기 논란은 당규상의 해석을 둘러싼 유불리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면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며 “(당 지도부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원래 후보자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하는 건데 요즘은 거꾸로 간다. 지도부가 후보들 얘기를 잘 안 듣는다”며 “당이 유능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 대통령 “코로나 고강도 조치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해 사용해 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 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적합도, 윤석열 29.9%·이재명 26.9%·이낙연 18.1%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였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의 격차를 지난주 18.1%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좁혔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1%, 정세균 전 총리 1.7% 등의 순이었다.

범 진보권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9.7%, 이 전 대표가 20.6%였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이 전 대표는 7.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추 전 장관 5.8%, 민주당 박용진 의원 4.4%, 정의당 심상정 의원 4.0%, 정세균 전 총리 4.0% 순이었다.

범 보수권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12.8%, 유 전 의원 10.9%, 안 대표 5.5%, 최 전 감사원장 4.3%, 원희룡 제주지사 4.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